

조선여성운동사와 더불어 빛나는 모습

반일부녀회 결성 기념일에 즈음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남성들과 어깨 나란히 하고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미더운 모습이 빛나고있다.

하다면 지난날 온갖 무련리와 천대속에서 불쌍하게 시들어가던 이 나라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진정한 존엄과 삶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과연 어느때부러던가.

주제 15 (1926)년 12월 26일.

일찍이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반일부녀회와 같은 혁명적여성대중조직을 무어주시고 우리 나라 여성운동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평도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신 강반석녀사의 기록한 손길에 있어 조선여성운동은 비로소 자기의 항로를 따라 승리의 한길로 활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동참하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 ≡)와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돌이켜보면 썩어빠진 봉건의 명예와 일제의 식민지철폐에 얽매어있던 우리 나라 여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그들에게는 초보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마저도 없었다. 강반석녀사께서 청춘시절을 보내시던 당시까지도 해도 우리 여성들은 대낮에 끈질기 다니지도 못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 석자도 못가지고 돈 몇알에 물권처럼 팔려다니며 천대와 굴욕속에 헤매던 조선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들의 굴욕적인 처지를 속명으로 받아들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평등도하여오시는 첫 시기부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혁명의 주체적력량으로 보시고 그들의 사회적지배방을 위한 투쟁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었다.

여성들이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독립시켜야 하며 해방된 조국땅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새 사회를 세우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었다. 여성조직을 광범한 근로여성들속에 뿌리박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차적일무로 내세우는 혁명조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핵심여성들부터 먼저 첫 혁명적여성조직을 내오시고 그에 기초하여 점차 광범한 여성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여성조직을 꾸려나갈데 대하여 환히 밝혀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여성해방운동사상에 의하여 조선여성들은 비로소 자기의 올바른 길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여성해방운동사상을 높이 받들시고 강반석녀사께서 반일부녀회결성을 위하여 바치신 헌신의 나날들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여성들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깨우치시는 한편 한사람이라도 더 조직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녀사께서 걸으신 그 길은 얼마였던가.

혁명적여성조직을 내올수 있는 단단의 준비를 갖추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무용에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들의 굴욕적인 처지를 속명으로 받아들이고있었다.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의 평등을 받들어나가는 새로운 혁명적여성조직,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과 여성들의 사회적지배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대중적여성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떠나 준엄한 혁명의 대대기이다 뚜렷한 자욱을 새긴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투쟁행로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반일부녀회가 결성되던 잊지 못할 그날 강반석녀사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메아리쳐온다.

「나라의 독립도, 새 사회의 건설도, 우리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을 누가 가져다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룩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단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임에서 부녀회를 결성하자하는것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하나하나를 약할수 있지만 한데 뭉쳐 든든한 조직을 이루면 그 무것도 무섭지 않은 큰 힘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에 뭉친 그 큰 힘으로 싸워서 나라의 독립도, 새 사회의 건설도, 우리 여성들자신의 해방도 거이여 이룩합니다!」

나루 부치는 짙을수 있지만 여러대를 합쳐놓으면 썩지 못하는 법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몇이 안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쳐 목숨을 걸고 싸우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나라

여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신념과 의지였다.

뜻깊은 그날 강반석녀사께서는 전체 회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반일부녀회 회장으로 추대되시었다.

이렇게 첫 고고성을 타치고 닦을 올린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여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는 온갖 광풍을 뚫고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과 더불어 승리의 항로를 따라 활차게 달려왔다.

안도의 수림속에서 탄생한 반일부녀회 강반석녀사께서 키우신 부녀회원들, 그 뜨거운 지성이 수놓아졌고 조국해방업적에도 반일부녀회원들의 공적이 깃들여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억세고 아름답게 피어난 너투사들이며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무장을 탈취한 슬기롭고 용감한 여성혁명가들의 정신세계는 또 얼마나 숭고한것이었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추억하시며 유격구시절과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너투사들속에서는 한명의 배신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위인들의 선군혁명평등도 긍지높이 흘러온 우리 혁명사는 혁명적여성운동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빛나는 장을 아로새겨왔다.

그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자라오던 평등도 목숨을 건져 충실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정말 장하다고, 선군혁명총진

중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 나라 여성들중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여성혁명가들이 많다고 하시며 이것은 여성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긍지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의 보람한 투쟁에서 여성들이 해놓은 크지 않은 성과도 애국적인 소행으로 적극 내세워주시며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우리 여성들은 하나의 일을 해도 백두산장군의 신념과 의지, 당력과 배짱, 열정과 슬기로운 지혜를 위대한 력량으로 자라나고 있다.

남자들과 똑같이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조국의 방진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미더운 여성군인들,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군관의 안혜를 그리고 군복업은 자식들의 모습에서 선군시대 어머니가 된 긍지를 한껏 느끼는 여성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평등을 만드는 길에서 생의 보람을 찾는 이 나라 여성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

정당 회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오신 조선녀성운동은 승리와 영광의 궤도로만 활차게 달려올수 있었으며 조선녀성이라는 그 부름은 조국의 자랑으로, 민족의 긍지로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날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가 되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강성대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일찍이 《녀성의 노래》를 그리드사 랑하시며 우리 여성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려오시기던 백두산녀장군 김경숙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온다.

위대한 평등도자 김경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우리 여성들의 적색한 기성과 불굴의 기개가 긍지높이 비껴있는 《녀성의 노래》.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여성들이 해방된 조국의 일터마다에서 수놓아온 위대한 기적과 위훈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그 자랑스러운 대오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경숙동지께서 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두구보다 많이 받은 우리 여성들이 새 생활창조의 푸른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행복한 삶을 꽃피우기 위한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우리 녀성들이 할 일은 실로 많고,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지난날 그처럼 설움만을 강요하던 썩어빠진 봉건인습과 일제의 사상잔재를 숙청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적 해방을 이룩하여야 하며 과피된 공장, 기업소들을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김경숙동지, 장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조국땅이 더디서나 울려퍼지는 《녀성의 노래》를 들으며 김경숙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녀성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절감하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시었다.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을 찾으시어는 나라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하는 일처럼 흥겨운 일은 없었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고 농장을 찾으시어는 손수 모내기도 하시며 알뜰을 많이 생산하는것이 바로 농촌녀성들이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고귀한 가치치심을 주시던 어머니의 열정을 넘친 모습을 우리 인민은 정말 못 잊는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그 나날을 잊지 못해하시며 김경숙동지가 《녀성의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이 노래는 천만군민의 고귀한 인연이 깊은 노래라고, 김경숙동지는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다니고 있는것을 좋아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너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새 조선건설에서 한몫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불러들여 주고있다.

참으로 결술한 선군혁명가이신 백두산녀장군 김경숙동지께서 지니신 조국번영의 기쁨이 이 땅에 《녀성의 노래》가 더 울려퍼지게 하였고 그의 손길은 우리 녀성들이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밀려들게 지르날수 있게 한 사랑의 자양분이였다.

나의 뜻, 혁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만발한 화원을 이루고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어나가는 우리 녀성들을 추억깊은 《녀성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경일장군님의 평등도마 배두산녀장군 김경숙동지의 명도마 배두산녀장군 김경숙동지의 엄격이 빛나는 내 조국땅에 강성대국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주요경연 <녀성의 노래>

한일 선군혁명전마다 리길에 걸린 이 자라니 필소라니 적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민스크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에비치 루카셴코각하

나는 당신이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제99 (2010)년 12월 21일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교원위생자기공장 담조직에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조직에서는 우선 위대성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당세로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다.

로동농민원 백광수



첫째가는 혁명과정

언제인가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상태에 대하여 로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건설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군사장비들을 잘 할수 있게 훈련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작전지휘능력을 부단히 높이고있을뿐아니라 군사업무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여러 종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군인들의 훈련을

숭고한 혁명적도덕관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

위대한 평등도자 김경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년이 흘러갔다.

주제 84 (1995)년 12월 25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있는 의지가 구현된 불멸의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평등도자 김경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의 선배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전열을 응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후대들의 혁명적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혁명하는 인민들의 고결한 도덕의리가 있으며 가장 큰 영예와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나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라는데 대하여 논증하시었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선배들에 대한 올바른 판결과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의리적관행을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위업을 응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으며 사회주의적인관행성의 중요한 척도가 있다는것이 로작에 반영되어있는 기본사상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평등도에 의하여 수령영생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것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표현이다. 혁명을 개척하고 이룩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로정으로 아로새겨진 단대기이다.

특히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약이 새롭게 개정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웅히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와 혁명적의리의 숭고성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판철을 최대의 사업으로 여기시며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도덕관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원천으로 되었다.

오늘 혁명의 계주봉을 역세게 이어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위훈은 세인을 놀라우고있다. 선형세대들의 투쟁전열을 이어가는데 후대들의 도덕적의무가 있다는것을 자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승적 영웅주의로 강산을 전진시키고 집단체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에 대한 단주의도덕의리를 더욱 활짝 꽃피워 위고조전투장마다에 거창한 창조적 활무대를 펼쳐나가고있다.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등도 한마음 뜻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고결하고 혁명적 대승적 사상정신세계가 있다.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를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는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펼쳐나가는 위대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데서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자기 수명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승리할것이다.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를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는 선형세대들의 투쟁전열을 응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후대들의 도덕적의무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정신,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 그들의 혁명가적 품모는 대를 이어 계승하고 따라배워야 할 대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보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대고조사업에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선형세대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떠나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의 선군혁명평등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불굴의 기개를 창조하고 주체적 생산관계의 확립, 자립경제의 대승적의로성으로 대고조전투의 새로운 전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는 강성대국건설사에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을 아로새겼을 것이다.

이것은 전후 제대미우에서 자라온 선형세대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떠나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의 선군혁명평등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불굴의 기개를 창조하고 주체적 생산관계의 확립, 자립경제의 대승적의로성으로 대고조전투의 새로운 전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는 강성대국건설사에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을 아로새겼을 것이다.

이것은 전후 제대미우에서 자라온 선형세대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떠나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의 선군혁명평등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불굴의 기개를 창조하고 주체적 생산관계의 확립, 자립경제의 대승적의로성으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승리의 개가

선군의 위력 펼쳐치는 길에서

몇해전 2월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부대의 업무수행정황을 로해하시거나 시 군인들의 훈련을 보여주시었다.

지휘관의 힘찬 구령에 따라 군인들은 열적의 기성과 용맹을 안고 동작을 신속정확히 수행하면서 훈련을 실천해가며 진행하시었다.

훈련을 주의깊게 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장에서 나가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총을 쏘면서 싸움준비를 성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합니다. 땀이 군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인의

본사기자 김성남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전망 올해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 마련

당을 따라 대고조의 승리를 펼쳐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사회주의복이 넘쳐날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와 당창건 65돐로 뜻깊은 주제99 (2010)년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총공세의 해였다.

인민의 리상향을 일떠세우려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위업을 제국주의반동들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질적시킴을 제재와 봉쇄가 극도에 이르렀다. 자연재해도 겹쳐들었다.

그러나 어떤 역경도 우리의 대진군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신념과 의지가 천년안반만 자랑되고있다.

은 나라가 올해 당에서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였다.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중앙의 경공업기지가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타올라 지방공업의 토대가 상승케도 들어서고있다.

다시한번 폭풍쳐달려 중앙의 경공업토대가 은을 내게 하고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면 인민생활향상의 전망은 확고하다.

이것을 올해의 총공세가 확증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극진을 열여놓으시기 위해 펼쳐진 구상과 작전은 결여없이 옹호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세해에

도 강행군을 계속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초부터 -30℃를 오르내리는 최한발전소 건설전투장을 찾으셨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거룩한 자옥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부리를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각지의 단위들에 온한해 끊임없이 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온 나라 인민이 따라나섰다.

새해동사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동주요, 김철로동계급의 편지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추동하였다.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힘으로 반드시 행복을 창조해갈 신심과 비판, 배양으로 세찬 공격전을 벌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불굴의 정신력과 창조력은 김철의 주체철학사상체계의 확립과 비날론대경사, 주체비교로, 대계도간섭적의 완공, 우리 식 내화물공업의 진면, 최첨단돌과진의 대승리인 최첨의 면하기와 같은 기적들을 낳았다.

올해를 경공업혁명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경공업부에서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시료공업의 토대가 자랑할만 하게 꾸러지고있다.

대규모당과류생산기지의 현대화가 실현되어 생산능력이 3배이상으로 높아진 평양복산공장의 진면에 이어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이 불과 몇개월사이엔 천지개벽하였다.

공장에 파배기직장을 비롯한 5개의 직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조종체계를 갖추었고있다. 5만t이상의 빵, 파자, 국수, 호도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이 대규모식료기지가 현대화되어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올수 있게 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 식료공업부문의 표준공장에 맞게 땀시우는 각종 신발을 대량생산

으로 꾸러진 통성식료공장의 성과는 대단하다. 특이한 맛과 향기를 내는 고기맛간장과 가공소금, 햄 등 각종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첨단수준의 간장직장이 통이 크게 꾸러졌다. 간장을 전통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게 된것은 기초식료품생산에 최첨단을 돌파한것과 같다.

신흥식료공장의 진면도 이와 다름없었다. 강서약수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져 물맛이나 수질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서약수생산이 10배로 늘어났다.

방직, 편직, 신발, 식료, 일용 등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대규모의 경공업기지가 기술개진으로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골지의 평양방직공장에서 메트론전원 생산공정을 훌륭하게 꾸러놓았다. 양복편과 사프린 등 천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함흥모방직공장의 비날론섬유실 생산공정, 신의주방직공장의 1만수트개실 생산공정, 9월방직공장의 CNC화면 유연장대직기 등 방직공업부문의 대규모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현대화되어 생산장성을 돋보여주고있다.

박천전직공장의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에서 수요와 비로도 등이 대량생산되고있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 강질유리직장이 새로 건설되어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갔다.

건축, 의류, 식료, 화학 등 인민생활 여러 분야에 필요한 열선탄사유리와 강질유리가 년산 수십만t 생산되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평양양말공장에 꾸러진 자동트롬시 너 자양말생산기지는 형태와 무늬, 색깔과 나이에 따르는 질 좋은 각종 양말을 수요에 맞게 생산할수 있다.

가볍고 땀시우는 각종 신발을 대량생산

하는 우레탄신발창성공정이 보통강신발공장에 일떠세우는 나라의 신발공업에서 하나의 혁신이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치약, 화장품생산공정을 개진하여 생산을 높이고있다.

평양수지연필공장에 새로 꾸러진 현대적인 수지연필생산공정에서 새형의 자동차수지연필들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풍경도 호프하다.

락방영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식료공업발전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포장재생산공정이 그준하게 갖추어졌다.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위생용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능력이 큰 위생용품생산기지도 훌륭히 일떠섰다.

이 모든것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든든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중앙의 경공업토대가 튼튼히 꾸러지는 것과 함께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지방공업발전에선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력사의 땅 창성군이 지방공업을 본래있게 발전시키고있다.

당의 뜻을 받들어 1960년대와 같이 군을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빛내여가려는것은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창성식료공장의 로동계급이 산과일가공에서 전국적인 패권을 쥔 목표에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높여 생산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었다. 이 공장의 산과일단들이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 보내지게 되었다.

창성식료공장은 창성공예공장과 군내 지방공업공정들이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창성의 모범을 따라 각지 시, 군들에서 자체의 잠재력을 지방공업공정들의 현대화에 총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각 도에 《삼일로》식 특산물종합가공기지가 멋들어지게 일떠서 생산에 들어간것은 나라의 경공업발전에선 혁명으로 된다.

은 나라에 《자랑도》로 이름난 자강도에서 평양일용품공장, 장강장절일용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다.

강계대지공장에 수천능력의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도적으로 130여개의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건설되어 농업생산에 기여하고있다.

강계기초식품공장, 만포식료공장, 우시식료공장 등 도내 많은 지방공업공정들이 컴퓨터조종체계를 확립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여갔다.

영광의 땅 회령에서 회령식료가공공장, 회령화장품공장 등 지방공업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읍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놓았다.

삼주군내 지방공업공정들이 중앙경공업공정 못지 않게 진면된것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많은 경공업공정들이 개진되었다.

황해북도, 함경남도에서는 수지제품사출기지를 현대적으로 일떠세운 사리원군내 수지일용품공장과 새로운 신발생산공정을 꾸린 함흥영예군내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하여 각각 수십개의 지방공업공정들이 올해 기술개진목표를 수행하였다.

순천구두공장, 해주신발공장, 대흥단갑자공공장 등 지방공업공정들의 기술개진공정들 부단히 확대되었다.

해산신발공장은 질 좋은 송장화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꾸러지고있다.

도, 시, 군들의 식료가공기지가 훌륭히 개진된것을 비롯하여 식료일용품공업적으로 400여개의 지방공업공정들이 기술개진되었다.

만포시, 연천군, 연산군, 초산군, 화

평군, 함주군, 배천군 등 각지 많은 시, 군들에서 자체로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워 지방공업공정들의 기술개진을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고있다.

지방공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이 자체로 지방공업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지방원료원천에 걸쳐서 의지하여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인민생활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또한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키는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올해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으로 약진코투하여 마련한 경공업의 잠재력은 실질적으로 크다.

중앙과 지방의 현대화된 경공업기지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 인민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경공업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한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오직 제힘을 믿고 양양된 기세를 멈추없이 더 높이 비약할 때 변영의 메일이 앞당겨진다는 철리를 다시금 가슴벅차게 새겨안았다.

경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전기사상을 긴장하고 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는 우리, 자재도 부족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뜻을 기어 실현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났다.

위대한 장군님께 운명도 미해도 다 달리고 고난의 천리를 뜻조이 걸어온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2분이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



- 선흥식료공장에서 -



- 박천전직공장에서 -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 하 당은 하 피 복 공 장 에서

하당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동사실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지난해보다 훨씬 높이 세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공정들에서는 선진기술로 개조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단산한대 기초하여 선순차를 높게 정하고있고 하나하나 실속있게 일어나야 한다.》

공장에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을 꾸릴때 다른 문제를 도의할때다. 지대한 조속동무가 공장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부 일군들은 선뜻 응하지 못하였다.

공창안에 나선 현행생산공정을 완전히 수행하면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린다는것은 결코 실현할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고 제품생산에 들어가자면 종

업원들이 그에 맞게 설비들에 빨리 정정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왔다. 이 문제를 힘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동사실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지난해보다 훨씬 높이 세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공정들에서는 선진기술로 개조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단산한대 기초하여 선순차를 높게 정하고있고 하나하나 실속있게 일어나야 한다.》

공장에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을 꾸릴때 다른 문제를 도의할때다. 지대한 조속동무가 공장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부 일군들은 선뜻 응하지 못하였다.

공창안에 나선 현행생산공정을 완전히 수행하면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린다는것은 결코 실현할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고 제품생산에 들어가자면 종

세차게 달려드는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열풍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해 전군속도를 높이고있는 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모범단위의 영예를 빛내며 중산의 동을 높여 올려가고있는 자랑찬 성과는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있고 설비관리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들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빛나는 결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기계설비를 주안으로 립장에서 알뜰히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설비관리운동입니다.》

일찍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뜻깊은 시기에 친히 평양방

현명한 령도, 빛나는 결실

직기게공장에 나오시어 26호선반을 돌리시며 설비관리와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장군님!

이 날애에 공장의 설비관리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먼저 26호선반을 새기대처럼 만드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마한 흠집이나 티라도 없게 세라 선반을 알뜰히 거두시였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공구들도 새로 갖추어놓으시며 몸소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끓여번지게 하였으며 한 공장의 울라리를 빛냈나 온 나라에 퍼져 갔다. 1980년대에 들어와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며 자기 발전의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감격도 새로운 주제98 (2009)년 9월, 력사적인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비스런 속에서 26호선반을 새기대처럼 만드셨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수심년전 자신께서 이곳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시던 것이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현장에서 낫을 익힌 로동자들의 안부도 일일이 물으시며 퍼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2중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생생히 이 땅에 로동계급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밀집히 결부되어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도처에서 수많은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고 최첨단들과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면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어 일터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러졌다.

26호모범기대들과 더불어 우리 조국땅에는 자랑찬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섰으며 근로자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나라살림살이의 향다운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참으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선조들의 최첨단들과의 새시대로 이어져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오늘도 각지 근로자들은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언제나 화선선동원의 심정으로 서창청년관공 8경 체단 1중대 1소대 선동원 김학철동무

서창청년관공 8경 체단 1중대 1소대 선동원 김학철동무는 어쩔수 없이 선출한 제대군인이다. 그는 당조직의 믿음에 의하여 선동원으로 사업하게 된 이후 언제나 화선선동원의 심정으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관심하고계시는 석탄생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일것인가.

그는 언제 어디서나 늘 이한가지 생각을 하면서 소대의 전투원들을 석탄생산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선동원을 출가하게 불러왔다. 그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석탄생산을 부쩍

늘어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자는 내용을 반영한 수십점의 해설담화자료들 소대의 심정에 맞게 잘 만들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높이 세운 전투목표들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장서면서 선동사업을 원만히 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짜내어 자신의 수고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남들이 자는 깊은 밤에도 그는 선동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학습하였다.

그의 선동은 언제나 혁명적군

인정신으로 맥박치게 되었으며 소대에서 혁신을 안아오는 불꽃이 되었다.

다정다감하면서도 인정깊은 그의 성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선동으로 되었다. 그는 위단의 단합과 혁명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소대원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선동원》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고있다.

오늘도 김학철동무는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소대의 전투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최 시 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단 천 제련소에서

사업으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었다.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편제를 밀집히 하면서 립제련의 방법으로 현대화공정을 밀고나갔다.

제련소의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기술개진사업에서 창조적열정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현대적설비관리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제련소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현지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1단계 조업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제련소의 일군들은 기술개진을 다그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필요인 설비와 자재보장장치를 앞세우면서 화선선동원

들을 능숙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기술기수준을 높여갔다. 하여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1단계 조업공정의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는 자랑을 떨쳐냈다.

뿐만아니라 제련소에서는 제품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중간시험공정도 훌륭히 꾸려 생산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설비를 받아들여 폐설비를 철거하는 수순에서 진행함으로써 종전보다 제품실수율을 부쩍 높여갔다.

오늘도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들이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그나에 배조직장과 조업직장을 비롯한 기본생산단위의 로동자들은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설비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평양326전선공장은 일 잘하는 공장,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가장지 수종의 나무들이 들어찬 구대미 산뜻한 외장체를 바른 건물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기 곤란하게 보이게 한다. 생산공정과 특색있게 꾸려놓은 야외휴식장소까지도 아늑한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

공장의 모든 현상들은 또 그것대로 환하게 꾸러져있다. 생산전선에는 어느 기대라 할것없이 알뜰한 현대적설비들이 규조있게 자리잡고있다. 로동자들이 맡고있는 일터에 는 혁신의 지광도 많았다. 수산업의 설비에 대한

본사기자 백 산 해

보답의 한길에 고결한 충정을 새겨온 빛나는 삶

피바다가극단 총장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김수조동무

혁명전사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그들 뜻을 아낌없이 주고 수형,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것인가. 피바다가극단 총장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김수조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감동깊은 대답으로 된다.

김수조동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용군에 입대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문예인이었다. 평범한 의용군병사자 후남 김일성상계관인으로, 공화국영웅으로, 인민예술가로서의 절정에 오를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김수조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출연을 담당수행한것을 비롯하여 국가적 인 주요예술행사를 성취적으로 보장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조국건설의 일심단결의 위력, 불패의 기상을 온 세상에 알렸고 파시하는데 크게 공헌한 수준있는 지식인, 재능있는 문예일군이었다. 그에게 어떤 천부적인 예술적재능이 있었는가 결코 아니었다.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정명을 안겨주고 절결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서 그의 빛나는 삶에 대해 결코 말할 수 없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과 실적으로 충직하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한생을 강고히 버려온 고결한 충정에 바로 그의 삶의 참된 가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 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보답의 의리가 있을뿐이다.》

김수조동무가 한평생을 늘

하던 말이 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간으로서, 혁명전사로써 받아안눌수 있는 모든것을 다 받아안았다. 삶의 모든것을 강고히 버려 그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것이 나의 소원이고 행복이다.》

이것이 그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였다.

주제 80 (1991)년 어느날, 당시 조선예술교류협회 축전조직과장으로, 공화국영웅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지를 찾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수조동무가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동무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를 총지휘한 사람이라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서 우리 당의 위대성을 세계에 빛냈는데 한류로 단단히 한 사람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순간 김수조동무는 너무도 파분한 평가의 말속에 눈곱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이를 우러르며 그의 가슴속에 한 평범한 예술인의 성정의 자욱자욱마다 애절하게 새겨진 위대한 어머니사랑과 믿음의 눈물결이 되겨졌다.

일제통치의 암담했던 시기에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나 불행중에 유년시절을 보낸 김수조동무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남조선의 현실은 일제통치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그이께서 계시는 공화국복남부를 열렬히 동경하면서 불합리한 사회현도문을 남편지

개달은 그는 결연히 투쟁에 나섰다.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옥중투쟁과정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은 그는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조직의 위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서울해방후 의용군에 입대하여 배우로 활동하던 그는 전라적인 일시적부시기 추호의 동요없이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고향땅을 위해 두고 북행길에 나서 전선과 후방을 중흥무전하면서 투쟁의 노래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져서 비로소 문예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음악무용수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보아주시고 창작가들을 만나주시 자리에서 그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며 우리의 신진창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인들이라도 집체적 힘을 합쳐서 창작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대견해하시며 앞으로 계속 힘을 합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무해주시고 어머니수령님의 자로운 품속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의 세계를 알고 광활한 예술무대에서 크직히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예술창작가로서의 재능을 세계무대에서 더 활짝 꽃피우도록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를 총연출이라는 중임을 맡아안았을 때에는 행사과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

그러나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자기에게 안겨주는 어머니장군님앞에서 그는 어떤

마마냥 눈물을 흘리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예술창조를 더 훌륭하게 해보라고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대예술집단을 능숙하게 통솔하는 그의 창작가로서의 남다른 재능의 짙은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견한 것이 어찌하고 일군들을 둘러싸고 고향땅을 위해 두고 북행길에 나서 전선과 후방을 중흥무전하면서 투쟁의 노래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그날밤 김수조동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함께 의용군에 입대하여 한생을 같이해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직 어머니수령님 한분만 믿고 평양으로 왔소. 나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천백번 옳다는것을 다시금 느꼈소.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높이 받들거요.》

그때로부터 김수조동무는 더 큰 창작적재능과 담력을 안고 국가적인 주요예술공연들에 대한 출연을 훌륭히 수행하여 어머니수령님께와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다.

그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예술작품을 통하여 온 세상에 소리 높여 파시하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고 그의 예술창조의 걸음걸음은 어떻게 하면 예술로써 당의 사랑과 의도를 실현하고 당의 위대한 수명을 이바지하며 당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펼쳐놓는가 하는데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수조동무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진백승 조선로동당》과 《아리랑》 출연을 맡겨주시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사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당시 70살이었던 그는 뜻밖의 사고로 창조현장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병치료를 마다하고 또다시 출연을 지휘

할 유일한 자막대기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창작적재능과 형상의 결사전의 앞장에 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에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진백승 조선로동당》이 성과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총연출을 담당한 피바다가극단 총장동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로도 성과적으로 보장한 공로있는 동무라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가는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한것만큼 정치적적지에서 볼 때 마땅히 공화국영웅칭호를 주는것이 어찌하고 일군들을 둘러싸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세 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작으로 본래의 창조자가 위하여 김수조동무는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이러면 것이 제기간에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장군님의 말씀을 자기자구 따져가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음악과 무용, 제초, 예제, 배경, 미술, 무대장치 등 데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였는것은 그의 한치의 드림도 없는 사명현의였다.

연예인이 작품의 수정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적이 있었다. 보통관례대로 하면 그가 내놓은 안은 모두에게 너무나 놀랐고 대담한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라고, 장군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유일한 자막대기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창작적재능과 형상의 결사전의 앞장에 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에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진백승 조선로동당》이 성과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총연출을 담당한 피바다가극단 총장동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로도 성과적으로 보장한 공로있는 동무라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가는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한것만큼 정치적적지에서 볼 때 마땅히 공화국영웅칭호를 주는것이 어찌하고 일군들을 둘러싸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세 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작으로 본래의 창조자가 위하여 김수조동무는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이러면 것이 제기간에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장군님의 말씀을 자기자구 따져가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음악과 무용, 제초, 예제, 배경, 미술, 무대장치 등 데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였는것은 그의 한치의 드림도 없는 사명현의였다.

연예인이 작품의 수정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적이 있었다. 보통관례대로 하면 그가 내놓은 안은 모두에게 너무나 놀랐고 대담한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라고, 장군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가 들고나가야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영예의 우승을 성취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기쁨은 류달리였다.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빛낸 우리 청소년 축구종합팀 선수들 가운데 학교출신이 여러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올해에 중 여달등안 안정지료를 받아야 할 때에도 그만큼 나라의 축구발전이 더디어지는것만 같아 한달만에 다시 훈련장에 나와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교수훈련지도에 열중하던 그의 모습을 생생히 간직하고있는데는 이만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이었다.

비록 박찬식동무는 승리를 쟁취한 선수들의 몸통만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곶을 떠나갔지만 그가 지니었던 고결한 념은은 나라의 축구발전과 더불어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났었다.

박찬식동무가 다하지 못한 몸까지 합쳐 전도유망한 선수후비육성사업을 더 많이 키워낼 꽃같은 열의가 학교의 곳곳에 차민지고 있다. 구역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체육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선수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의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바친 유능한 지도교원이었습니다. 《학성선발을 위해 그가 걸은 길은 그 얼마이며 정확한 기초

영예의 우승자들을 배출한 자랑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훈련장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뿌려가던 날과 달,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려고 시간과 야근을 아끼고 많은 도사들을 잃고 자라들을 연구해가던 탐구의 낮과 밤은 그 열매였던가.

여러차례에 걸쳐 축구종목의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랑한 성과들을 이룩할 때에도, 품을여 키운 수많은 제자들을 체육관내에 보낼 때에도 기쁨보다 먼저 자기 입구에 대한 자각을 다시금 깊이 새겼다는 박찬식동무.

올해에 중 여달등안 안정지료를 받아야 할 때에도 그만큼 나라의 축구발전이 더디어지는것만 같아 한달만에 다시 훈련장에 나와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교수훈련지도에 열중하던 그의 모습을 생생히 간직하고있는데는 이만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이었다.

비록 박찬식동무는 승리를 쟁취한 선수들의 몸통만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곶을 떠나갔지만 그가 지니었던 고결한 념은은 나라의 축구발전과 더불어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났었다.

박찬식동무가 다하지 못한 몸까지 합쳐 전도유망한 선수후비육성사업을 더 많이 키워낼 꽃같은 열의가 학교의 곳곳에 차민지고 있다. 구역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체육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선수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의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바친 유능한 지도교원이었습니다. 《학성선발을 위해 그가 걸은 길은 그 얼마이며 정확한 기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인덕에서—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

신인주시 성서농장 관리위원장 김련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주제 85 (1996)년 2월 신의주시의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김련화동무는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성서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농장의 일부생산실태는 시한이 없었다. 견해에 큰물피해를 입은 농장의 토질은 지력이 매우 낮았다. 일부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였다.

김련화동무는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서 깊은 생각을 잠겼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편지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을 메고 달리는 대의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될것을 바라고있지 않는다.》

그는 한해 농장의 농사를 책임진 자신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하였다.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조선청년학생대표단 귀국

당조직의 지도밑에 김련화동무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의 가슴속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지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발걸음에 뜻도 마음도 맞추며 앞구 생산을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고 호소하는 관리위원장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무엇보다도 거름생산에 큰 힘을 냈다. 불베기철이던 그는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쉬임없이 땀을 배어들이었고 이른아침이 되면 땀을 메고 진거름을 나르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김련화동무가 만든 콕한 퇴적분을 보며 사람들은 관리위원장이 장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나갔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자신뿐만아니라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거름생산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면서 총화사업도 실속있게 하여 농업근로자

들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농장포전들의 토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어느 작업반의 포전은 모퉁이가 많으니 흙갈이를 질적으로 하고 어느 작업반의 포전은 질매흙만이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겠다며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는 관리위원장의 이룩한 일군들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에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동되었다.

김련화동무는 농사차비로 무더미로, 김베기 등 모는 영농농공작도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두고 농사를 알심있게 짓기 위해 포전에서 늘 살다싶이 하였다.

김련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이룩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농장은 농사수확을 단번성공이라는 기적적인 위훈을 새겼다.

오늘도 김련화동무는 당의 농민혁명방향을 높이 받들고 농사를 더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있다.

《보급부문의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는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3년전 여름이었다.

서성구역인민병원으로는 한 환자가 급히 실려들어왔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당황하였다.

10번째, 11번째의 흉추추체가 다 녹아있어 남의 부축을 받으므로도 도저히 앉을 수 없기 힘들어하는 념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당할 해야 했으나 그에게는 합병증까지 있어 쉽게 결심할수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병원은 지난 시기 특별성적자를 비롯한 전문과적치료에서 비롯한 성과를 이룩하여 소문을 냈다.

지능형가금일개우기조장장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발명한 이 장치는 가금류일개우기장치내부의 운송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알클리기를 진행하며 환기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제안된 장치는 일개우기에 필요한 각종 측정 및 조종기능, 수감부상대진단기능, 컴퓨터와 결합된 지능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일개우기실수율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분류식 수차

합흥수리동력대학에서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높은 분류식수차를 제안하였다.

이 수차는 중소형발전소용수차이다.

분류식수차는 대칭으로 된 1단과 2단날개바퀴, 분사수차와 안내날개, 분리원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사수차지는 안내날개, 조절판, 조절축, 조절판으로 되어있으며 안내날개의 여단김에 의해 조절된다.

분류식수차는 저수지는 있지만 물량변동이 매우 심한 지점이나 조절지수가 없이 하천의 막차를 리용하여 건설한 수력발전소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다.

새로운 청자기와생산방법

대동강달일공장에서 타일생산공정을 세취할 때 비록으로 처리하던 공화도석을 리용하여 청자기와를 만드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발명가들은 공화도석을 전식미분하여 한가지 원료를 가지고 저온 1차소성방법으로 질 좋은 기와를 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종전의 일련화공정을 없애고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을수 있다. 생산실수율을 90%이상 보장할수 있다.

본사기자

효과가 좋은 울리방향천공공진기

자리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지상과 경도사이, 경도와 경도사이를 연결하는 수직경과 사강의 공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본공 랑팡, 판산에서는 수직경이나 사강을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하는 천공발파법으로 건설하였다.

천공발파법은 천공과 발파, 버려치작업에 힘이 많이 들뿐 아니라 로동안전조건이 나쁘다.

울리방향천공공진기는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뚫는 공진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아웃존중도에 설치한 울리방향천공공진기에 아메추중도까지 직경이 200-300mm인 안내구멍을 뚫은 다음 안내천공정머리를 확공정머리로 바꾸어달고 우로 끌어올리면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완성한다.

이 공진기는 수직경 및 사강공진에서 천공발파법의 결합을 극복하고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 지하철도건설장에서 누름계가 200-250MPa인 깊은 암선조건에서 최대깊이 1000m 이상, 직경 8m까지의 굴을 뚫는데 리용되고있다. 수직경과 사강공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본공 랑팡, 판산에서는 수직경이나 사강을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하는 천공발파법으로 건설하였다.

천공발파법은 천공과 발파, 버려치작업에 힘이 많이 들뿐 아니라 로동안전조건이 나쁘다.

울리방향천공공진기는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뚫는 공진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아웃존중도에 설치한 울리방향천공공진기에 아메추중도까지 직경이 200-300mm인 안내구멍을 뚫은 다음 안내천공정머리를 확공정머리로 바꾸어달고 우로 끌어올리면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완성한다.

이 공진기는 수직경 및 사강공진에서 천공발파법의 결합을 극복하고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 지하철도건설장에서 누름계가 200-250MPa인 깊은 암선조건에서 최대깊이 1000m 이상, 직경 8m까지의 굴을 뚫는데 리용되고있다. 수직경과 사강공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새 기술 소식

효과가 좋은 울리방향천공공진기

자리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지상과 경도사이, 경도와 경도사이를 연결하는 수직경과 사강의 공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본공 랑팡, 판산에서는 수직경이나 사강을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하는 천공발파법으로 건설하였다.

천공발파법은 천공과 발파, 버려치작업에 힘이 많이 들뿐 아니라 로동안전조건이 나쁘다.

울리방향천공공진기는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뚫는 공진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아웃존중도에 설치한 울리방향천공공진기에 아메추중도까지 직경이 200-300mm인 안내구멍을 뚫은 다음 안내천공정머리를 확공정머리로 바꾸어달고 우로 끌어올리면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완성한다.

이 공진기는 수직경 및 사강공진에서 천공발파법의 결합을 극복하고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 지하철도건설장에서 누름계가 200-250MPa인 깊은 암선조건에서 최대깊이 1000m 이상, 직경 8m까지의 굴을 뚫는데 리용되고있다. 수직경과 사강공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물고기간장

물고기간장은 물고기간장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물고기간장은 주로 수산물가공부산물과 가공할 가치가 적은 작은 물고기를 리용하여 소금농도조절에서 발효시킨 면은 액체상태의 조미료이다.

물고기간장은 절묘하게 보통간장과 비슷하지만 동물성단백질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아미노산함량이 높고 여러가지 기능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물고기간장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좋고, 로화를 막는데도 좋을뿐아니라 콜레스테롤저하작용, 당대사개선작용 등의 기능성도 크게 주목되고있다. 또한 수산물가공부산물로 만들수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면에서의 의의가 있다.

물고기간장은 물고기간장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물고기간장은 주로 수산물가공부산물과 가공할 가치가 적은 작은 물고기를 리용하여 소금농도조절에서 발효시킨 면은 액체상태의 조미료이다.

물고기간장은 절묘하게 보통간장과 비슷하지만 동물성단백질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아미노산함량이 높고 여러가지 기능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물고기간장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좋고, 로화를 막는데도 좋을뿐아니라 콜레스테롤저하작용, 당대사개선작용 등의 기능성도 크게 주목되고있다. 또한 수산물가공부산물로 만들수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면에서의 의의가 있다.

우리의 집은 랑의 품에서

《섬실합니다.》

첫눈에 알아 못보는 의료일군들에서 서운함을 느낀 사람은 60이 지난 한녀인이었다.

몸이 잘려내고서도 그렇게 물라보겠는가고 념인이 이르며 사건의 첫머리를 떼서야 의료일군들이 그 누구인지 알았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잊을수 있겠나.

병원은 그 념인에 대한 치료로써 자기의 연학사과에 착수할 단번성공이라는 기적적인 위훈을 새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급부문의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는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3년전 여름이었다.

서성구역인민병원으로는 한 환자가 급히 실려들어왔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당황하였다.

10번째, 11번째의 흉추추체가 다 녹아있어 남의 부축을 받으므로도 도저히 앉을 수 없기 힘들어하는 념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당할 해야 했으나 그에게는 합병증까지 있어 쉽게 결심할수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병원은 지난 시기 특별성적자를 비롯한 전문과적치료에서 비롯한 성과를 이룩하여 소문을 냈다.

《섬실합니다.》

첫눈에 알아 못보는 의료일군들에서 서운함을 느낀 사람은 60이 지난 한녀인이었다.

몸이 잘려내고서도 그렇게 물라보겠는가고 념인이 이르며 사건의 첫머리를 떼서야 의료일군들이 그 누구인지 알았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잊을수 있겠나.

병원은 그 념인에 대한 치료로써 자기의 연학사과에 착수할 단번성공이라는 기적적인 위훈을 새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급부문의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는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3년전 여름이었다.

서성구역인민병원으로는 한 환자가 급히 실려들어왔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당황하였다.

10번째, 11번째의 흉추추체가 다 녹아있어 남의 부축을 받으므로도 도저히 앉을 수 없기 힘들어하는 념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당할 해야 했으나 그에게는 합병증까지 있어 쉽게 결심할수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병원은 지난 시기 특별성적자를 비롯한 전문과적치료에서 비롯한 성과를 이룩하여 소문을 냈다.

병원적인 관심속에 두달동안의 입원치료과정에 넘다른 사랑을 받았던 념인은 많은 사랑의 얼굴을 그려보며 마음가버어 정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 인간을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들은 자기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있었다.

녀인은 다는 못했다.

이들이 자기만이 아닌 구역안의 많은 주민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치료하고있었으며 그렇게 자기를 다하고있고서도 레사로운 날의 하루하루로 그것을 대하고있었다는것을.

그로써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도 이들은 아직 자기들의 성과를 여기저기에 자랑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들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그때 비로소 알려진 하나의 이야기를 적는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집을 찾아다니며 보살펴준 의사가 있다. 그가 바로 리창용동무였다. 그리고 환자가 일하던 평양메이링공작 일군들과 평천구역 새마을2동 67인민반원들과 전로소로 집단의 소행도 감격적이였다.

그날 념은은 자기가 안겨사는 이 땅의 고마움이 너무도 눈물여겨 목메어 웅했다.

환자의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의 집은 진정 당의 품이라고.

본사기자 방경 찬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일마전에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농장적인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작업반별분별행진으로 시작된 이날의 체육경기는 대중운동제, 건강레전도, 탁구, 장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과 민속유희오락들로 이채를 더하였다.

응원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출전한 선수들은 정성에 편마해는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로동농원원 한우 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일마전에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농장적인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작업반별분별행진으로 시작된 이날의 체육경기는 대중운동제, 건강레전도, 탁구, 장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과 민속유희오락들로 이채를 더하였다.

응원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출전한 선수들은 정성에 편마해는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로동농원원 한우 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대병사로 자라난 아이들의 소식을 받아안은 기쁨 —순천시 금천동 26인민반 조제봉동무의 가정에서— 김진명 찍음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떠나갔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떠나갔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백두의 녀장군을 우러르는 남녘의 마음

세월이 흐를수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칭송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김정숙어머님의 한평생은 나라와 민족, 민중을 위한 헌신의 역사로,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생애로 빛나고 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혼신을 강리코 바치시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오를 뿐인 인민이 칭송하는 백두의 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충신의 귀감이라는 고귀한 존엄이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학사에는 애국충절로 이름을 남긴 녀장군도 있고 무공을 세운 녀장군도 있지만 김정숙동지와 같이 만고의 빨치산대장군을 평생 모시고 민족구원의 혈전장에 함께 계시며 자신께서 직접 혁혁한 무훈을 세우신 빨치산녀장군은 없었다.》

... 열렬하고도 뜨거운 이러한 칭송의 목소리들이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남녘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

세상에 제노라 하는 녀장군이 많았지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공으로

지니시고 짧은 생이지만 별처럼 빛나게 사신 김정숙동지 같은 녀성혁명가는 없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도심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조국해방위대와 건국로선판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 나가실 절충한 평등자로 받아들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니는 너무도 일찌기 우리의 길을 떠나시었으나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겨레의 가슴속에 영생하고계신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김정숙동지의 한평생은 위대한 충신, 절충한 민족적영웅의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것이다.

연인간 서울에서는 자주회 성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한 회원은 《백두의 녀장군도 명성높으신 김정숙녀사의 탄신일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우리 민중의 마음은 위대한 김정숙녀사의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가고 혁명동지이신 어머니에 대한 사후적 그리움과 경도의 정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일찌기 10대에 벌써 김일성주석님의 전사가 되어서 손에 총을 들고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빨치산의 녀장군이고요 해방후에는 통일독립된 조국건설을 위해 활동하시느라 주석님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신 위대한분입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국과 겨레를 위한 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무조건관철의 정신, 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투쟁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품심으로 지니고계셨다.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라고 행동하시며 민족을 주석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진실성으로 교양하고 이끌어 가신 녀사의 이 고결한 품성이야말로 우리들이 따라배워야 할 품성이라고 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은 곧 우리의 하늘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명이시라고 여기고 있다.》

1940년에 있는 대사회적 전투에서 사령부였을 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는 죽어도 좋을 것이라 믿고 기어오르는 애들을 보던

하고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김일성주석님을 온몸으로 막아 나섰었다. 흥기하진투때에는 사령부쪽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외면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벌리기도 하시었다. 해방후에도 위대한 주석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김정숙녀사는 우리 민족이 자랑하고 높이 따라야 할 조건의 어머니이다.》

어찌 이렇듯의 심정이라. 언제가 한 지식인의 집으로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찾아와 며칠전부터 벌리던 민족의 운명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있는 일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주인이 먼저 말머리를 떴다.

《오늘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 류가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올라 운명도 미래도 다 말이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공로를 우러를 때마다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을 안아올리시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생각하게 된다. 녀사께서는 참으로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나는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며 녀사께 다함없는 감사사를 드리곤 한다.》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던 다른 한 지식인이 말을 받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실천공이 휩쓰는 백두봉에서 조선의 미래를 안아올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이 아버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대를 잇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시었다. 생전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녀사의 업적은 아드님을 잘 키워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한 것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래도록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에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영원 불멸할 업적을 칭송하는 남녘겨레들의 뜨거운 마음과 무뎠던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굳은 의지가 그대로 비쳐 있었다.

이처럼 남녘겨레들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최복은

자주로 존엄떨치는 주체의 나라

남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평등도에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공화국 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고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내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고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전하고있다.

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식 CNC기술의 발전,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기술과 원료를 주체화실현을 원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전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이며 우리식, (자력갱생)을 고수할 것임을 명확히 하신것》,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민신문은 《자주민보》는 대개도간격으로 선진시대의 기념

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은 간석지건설을 통해 북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특히 대개도간격으로 건설되는 농을 풀기 위한 제방공사만 하 자고 해도 어려운 조건에서 수 년만년을 두고 주민들이 최상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되었다.

대개도간격지는 북의 자주성에 대한 표현이며 가장 중요한 생활까지 넘어서는 주체의 지의 표현이다.

대개도간격지별 출렁이게 될 장쾌한 황금물결은 북의 강력한 자주의 상징이며 또한 남쪽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인민신문은 《통일뉴스》는 오직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북에서 대외존이 통할라 만무하다. 수입지표에 명줄을 거는 대외존에 대해 그들은 일찌기 생각을 접었다. 북은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경쟁업체들과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인민생활수준을 높이고있다 전하였다.

한 신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가해도 그리고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그들은 얼어붙게 해도 자립으로 선진국들 부럽지 않은 리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전진해가고있는 이북은 끄떡없고도 자랑스럽다. 본사기자 최복은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주체의 나라를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고있는것은 바로 천출위인 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있기 때문이라고 격찬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끊임없이 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이북의 모습은 바로 김정일명도자님의 자주정신과 혁명적기질, 담백의 표현이다.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선군정치로 북의 자주정신과 혁명적기질이 더욱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울산의 한 로조원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을 다시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어 떨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자립경제의 역적들은 기만우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땀과 눈물로 인민을 이여가신다. 장군님께서 부총의 봉화를 지어주시고 건국의 공업지대와 농촌지대를 중흥무진하시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계신다고 절절히 말했다.

한 통일운동가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이 만무할수록 공화국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자주정신은 더욱 강하게 분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질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에 경탄하며 북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최복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남조선피괴배당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게 《보안법》 위반이라는 무서운 《죄》를 씌워 끝끝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조적폭거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12월 25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 보도 제97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피괴배당의 파조적폭거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반복한 유린이고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토한의 용납 못할 도적이다. 한상렬목사가 6. 15공동선언 10조를 계기로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열렬한 지향과 결연한 의지로써 출발한 애국적성향으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북녘의 각계층 동료들과 만나 뜨거운 현실의 정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외세의 지배와 침략책동,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당등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

선언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괴배당은 한상렬목사에게 《승인》도 없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불법》, 《리직》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야수적으로 체포구속하고 장기간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하던 끝에 중형까지 들먹이는 파조적당부를 부린것이다.

동족이 사는 곳을 오고가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한것이 어떻게 《리직》이 될수 있겠는가 《불법》이 될수 있겠는가.

북과 남의 동료들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가로막고 연락을 범죄시하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활동, 반외세자주투쟁을 탄압하는것이야말로 역적배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와 추악한 사대매국노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낸것이다.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

사들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면서 통일애국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피괴배당의 하야오 남조선에서 민주와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파조와 동족대결만이 판무하고있다.

역적배당이 이번에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들먹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온 민족과 대외외론에 여행하여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길로 끝까지 나가겠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통일애국에 등을 돌리고 분열과 대결, 전쟁책동에 미칠뿐이어서 피괴배당이야말로 전쟁책동에 미칠뿐이어서 피괴배당을 강력히 규탄단죄해나사야 할것이다.

피괴배당은 한상렬목사에 대한 부적당한 처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최복은

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고베를린 북침전쟁을 앞장서서 더욱 무모하게 몰아대는 극악한 호전광들이 있다. 한반도에 실어도 찍지 않을 피괴배당장관과 합동참모본부장관이다. 피괴배당장관 김관진은 전쟁광기에 있어서 단언 갓손가락에 찔려 포사격도발이후 장관자리를 떠난 유일한 전쟁광신자이다. 그가 얼마나 전쟁에 환장한자인가는 《국외인사문첩》이 파장에 날림이 드러났다. 이자는 지난 3일에 있는 《국외인사문첩》에서 북이 《주가도발》을 할 경우 항공기를 통해 폭격하겠다고. 《우승》이니 뭐니 하며 화악니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여 부족하다면 합동지원력까지 투입해 추가격격》을 가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어 김관진역도는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감히 드러내며 《주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역도는 《교전수칙》이 어찌나

리성을 잃은 전쟁광신자들

저쩌니 하면서 현장지휘관들이 《선조지, 후보고형식으로 강력 대응할것》을 일선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한편 《공세적시리전》을 떠밀어 버려 살포에 이어 군사분계선일대 11개 지역에 설치한 대형확성기를 통한 위협포사격으로막막한 전을 개시하려고 날뛰고있다.

지난 20일에 또다시 강행된 피괴들의 연평도포사격도발을 앞장서서 지휘하였던 바로 이자이다. 김관진역도는 연평도에 서의 포사격훈련장소에 대해 운운하면서 훈련은 《우리 구역에 뛰니 하며 화악니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여 부족하다면 합동지원력까지 투입해 추가격격》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어 김관진역도는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감히 드러내며 《주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역도는 《교전수칙》이 어찌나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들지 말고 단호히 짓부시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백수집단간이 나 우리 인민에게 해악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등지를 틀고앉아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매일같이 감행하는 미제, 우리 인민앞에 풀이없이 빌고 또 빌며 천번대의 배상을 해도 씨천치 않음이 철천지원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부러우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고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포사격당등을 준벌히 단죄하면서 우리 인민의 기치밑에 감행한 자위적투쟁을 키워오면서 얼마나 절망한것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농업전선을 더욱 굳건히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북침전쟁도발이 날로 우세해지고있는 지금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을 굳건히 지켜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썩만 같다.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지 않았던가.》

그에게서 우리 힘으로 농장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고있는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나라의 쌀들을 책임진 주인된 각각각각 알뜰살림에 애국의 수고함을 바쳐가고있는 우리 농장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부여주시는 사랑이 너무도 뜨거워 보답의 마음만큼은 감격이 일떠서 우리 농장원들이다.》

그런데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러한 우리 열의를 대놓고 불모치를 들고 날뛰고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조선

맞고도 위험한 전쟁도발판을 벌려왔다. 여기에서 이자는 《주가도발에 따른 다각적대응책》을 운운하며 상연에게 《자위헌선사》에 대한 승인과 「F-2A행위」 전투기투입 등 미군의 화적지원을 적극 구걸했다. 한편 연평도 피괴배당부대를 찾아가 또다시 《강력한 응징》을 선포하며 애국자들이 처진 사명들을 우리에 대한 도발에 부추겼다.

피괴배당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런 무분별한 전쟁광기가 어떤 파국적후과를 초래했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불을 절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외세의 북침전쟁화살이 되어 불타고 불타고 불타고 헤엄치는 전쟁광신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호전광들이 북침전쟁마차를 광란적으로 몰아떨어놓을 무렵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앞당겨져 열매진 피괴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상원과 서울에서 이마를

본사기자 송영석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

전인대아조선전선회의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피괴배당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이 나 평화나 하는 일촉즉발의 임종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정세의 악화를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도발적인 책동행위를 연이어 벌려놓을 때에도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왔다고 하면서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비호밑에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도 정당화할수 없는 무분별한 전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아시아의 세계평화와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민일 남조선당국자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조선반도에 엄중한 전쟁의 변화를 몰아오게 된다던지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게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자위적투쟁과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한편 조국통일법민족화합 유령적연방부와 미제와 남조선피괴로 협력하고 제도와 남조선피괴

호전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리명박 《정전》의 무모한 전쟁연습을 《정식훈련》이라고 비호하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의 《자위헌선사》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전면전복사》니 하는 위협천만한 폭언들을 공공연히 두둔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평화에 호인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온 겨레가 우리 인민과국외의 힘으로 미국과 리명박사대대국 《정전》의 전쟁책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리울수 없는 평화 파괴자의 정체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피괴배당호전광들은 지난 20일 끝끝내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호전광들은 전투특기자와 다련장교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대거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수천발의 총포탄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조선서해해상은 그야말로 하나의 전쟁터로 방불케 하였다. 피괴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포사격도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유린당하였다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전쟁전야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번 연평도포사격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히 엄중한 무장도발이다.

지난 11월 피괴호전광들은 조선서해의 가장 민감한 수역에서 북침을 노린 그 무는 《호국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측 병함에 포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것이 불법무법의 《북방관계선교수》를 노린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으로 달려온 명백히 우리측 수역에 속해있는 섬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겠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피괴들이 남조선의 술한 섬들중에서

구애어 연평도를 골라 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의 도발적정격은 드러나고도 남는다. 불법무법의 《북방관계선》을 인정받아 보려는 술책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충돌의 불씨를 뿌리고 긴장격화를 조성하는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남조선군부에 포사격훈련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임을 거듭 엄숙히 경고하였던것이다.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가에서라도 명백히 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괴호전광들이 연평도에서 우리측 병함에 무모한 포사격을 가하였다.

피괴들의 이번 포사격훈련은 바로 이런 절한 정세속에서 감행된것으로 하여 지난 11월의 연평도포사격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것이다. 그것은 한차례의 도발로는 서차지 않아 2차, 3차로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우리와 무력으로 끝까지 대결하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면서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피괴호전광들의 호전적정격은 그 무엇보다도 더도 가리울수 없다.

피괴들의 연평도포사격훈련은 온

한 총포성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발로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남조선피괴들이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감행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불아를 파국적후과를 우려하면서 그의 죄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호전광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강력한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고 미친듯이 해뎠다. 피괴군부는 경도파괴용무기와 미사일을 도입한다. 무인정찰기를 배치한다 하면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을 박차를 가하였다. 리명박도까지 직접 나서서 《서해 5도를 요새화하라.》고 피대를 두들겼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복입은 호전광들도 최전선일대를 싸들고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속에 피괴호전광들은 기존의 《교전규칙》을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바꾸고 《선조지, 후보고》를 떠들며 연평도일대에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민멸한 준비에 기초하여 피괴들은 지난 20일 연평도에서 또다시 무모한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고 그것을 우리로 북침전쟁을 가하여 도발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은 정철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들지 말고 단호히 짓부시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백수집단간이 나 우리 인민에게 해악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등지를 틀고앉아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매일같이 감행하는 미제, 우리 인민앞에 풀이없이 빌고 또 빌며 천번대의 배상을 해도 씨천치 않음이 철천지원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부러우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고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포사격당등을 준벌히 단죄하면서 우리 인민의 기치밑에 감행한 자위적투쟁을 키워오면서 얼마나 절망한것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호전광들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역적배당의 그 어떤 위협도 도발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최후의 승리는 평화수호를 위한 사명결단의 의지에 충당되어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는 평화파괴자들에게 대한 평화수호자들의 준엄한 단죄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호전광들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자신이 선택하고 지켜온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켜갈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배배배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고 평화파괴자들에게 대한 치초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 독해운성인의 일군들은 그 분노를 안고 강성대국을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최해운성 국장 김순길

위험천만한 불량난소등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7일 문명을 발표하여 피괴호전광들의 연평도에서의 무모한 포사격행위를 단죄하였다.

문명은 합동참모본부가 18일부러 21일사이의 기간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할것이라고 떠밀어 대대 언급하고 이것은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는 위험천만천이라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불량난에 매달리면

단계들은 당국이 연평도에서 진행하게 될 포사격훈련을 두고 《정상적인 훈련》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평화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당국이 지금까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철저히 대해 명시한 10. 4선언리행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단계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것을 주장

남조선의 진보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조선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군국주의의 이번 포사격훈련은 사실상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조선서해에서 긴장상태가 고조되는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10. 4선언서서 합의하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하루빨리 창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이 무모한 전쟁책동을 중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설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

브라질 단체 인터넷에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희세의 명장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글에서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대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9년간은 김정일최고사령관시절말로 희세의 명장이심을 실증한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김정일동자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명철한 지략을 지니고 계신다.

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총대시사상과 로선을 심화발전시킨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연적으로 펼치셨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권력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강력히 군사적외력으로 제압하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미국의 압살정책과 경제적붕괴가 극도에 이른 엄혹한 사태하에서 군사적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시으로써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그이의 지략은 공격적인 전략이다.

지난 19년간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조선이 이룩한 성과파마는 천리해인의 선견지명파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수로

대한 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다.

이께서는 총참모관들을 단순히 병사로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간주하고계신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적들의 총구가 요양에 도사리고있는 최전방에도 서슴없이 나가시고 아슬아슬한 칼바람길과 사나운 폭랑길도 끼끼어 가시는 이께서 계시어오 하려 조선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란 관계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결사옹위의 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희세의 명장 김정일령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병사들에

콜롬비아단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콜롬비아국제주제사상연구소에서 4일 《명장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블레젠을 발행하였다.

블레젠은 머리글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20년간은 령도자로서 그의 품모가 남김없이 파시되어온 나날이라고 강조하였다.

블레젠은 《독특한 군령도 방식》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군부대시찰은 전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총만되어있다.

흔히 국가령도자들의 군부대시찰은 군사장비들에 대한 참관으로 그치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침실로부터 식당, 부식물창고,

하고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조선반도에있는 일축축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었다.

이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조선의 한치의 땅, 한호기의 풍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원수들에게 단호히 경고하시었다.

이이 조선에서는 핵무기전과 방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울려나왔다. 미국은 조선과의 회담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누구에게나 전적이 불가피한것으로 여겨졌던 위기는 마침내 1994년 10월 조미가 평화협의를 체결하고 그리행에 대한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턴의 담보사항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각본들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배짱과 의지에 의해 휴지장조로 되고

핀란드정계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하르유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서 그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그의 지략은 공격적인 전략이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명장이시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후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김정일동지께서는 독특한

말았다. 인공지구위성 《평명성 2》호발사도 조선의 담력과 배짱이 얼마나 강간가를 잘 보여 주었다. 조선의 위성은 적대세력들이 《요격》을 떠드는 속에서 보란듯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미국의 사측 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인 평화적위성발사를 결코그치지 않는것에 대해 즉시 사죄하며 사죄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자위적조치들을 취하겠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조선은 제2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자기 나라가 결코 빈발사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정의롭고 당당한 조선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3.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2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에 비해 3.3% 더 늘어났으며 1.61 미상수성이 이에 대해 뺏겼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8일 류혈적인 총기류범피사건이 일어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시의 한 간이시 당에서 무장범피자가 사람들에게 제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본의 도쿄 쇼요연주소는 8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11월에 전국적으로 1 061개의 기업체가 또 파산당하였다 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2 738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6일 일본경찰청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4 6만 5 223건의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

위인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세계

일 제 기 생 건 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남을 위해 자기를 강그러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동무가 걸어온 인생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미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녀사의 친품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더없이 뜨거운 인정미는 국적을 초월한 무한 대하고 열렬한것이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는 항일투사들과 전국각지의 인민들은 물론 우리 수령님과 인연이 깊은 의국의 전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들을 밝은 웃음으로 따뜻이 맞이하시고 웃웃가락을 다 하여 환대하여주시었다. 하기가 누구나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뵈면 하면 그 인정미에 끌려 헤어지기 힘들어하였다.

김정숙동지에 대한 진보적 인류의 뜨거운 추억의 세계를 전하며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중한 보편되어있는 두조의

은저가락, 여기에 깃들어있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생애에서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은 저가락의 주인공인 이천 초원군 군관이었던 엠. 왜와선이 새겨안은 인자하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참으로 뜨거웠을 것이다.

해방직후 왜선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그심에 어려움도 있고 그들은 수령님과 발상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던 와중에 저가락을 서둘러스스하게 보시고 그렇게 앞으로 저가락씨는 법을 배우려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다정한 말씀에 심취되던 그는 그날 아침잠을 주시는 두조의 은저가락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이 어린 두조의 은저가락,

왜선은 그후 가보로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두조의 은저가락을 볼 때마다 항일의 녀성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어머님을 감회깊이 추억하곤 하였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에게도 인생의 말년이 왔지만 두조의 은저가락만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변함없이 빛나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수십년동안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두조의 은저가락에 담겨진 사연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것을 바라는 마음에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이 깃든 은저가락들을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 보내어졌다.

김정숙동지에 대한 왜선의 열화같은 호모심과 더불어 그에게서 지워지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세계는 그만큼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18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배격하였다.

미국회 상원이 베네수엘라를 비방성상하는 망발을 마구 쫓친 자를 이 나라 주제 미국대사로 임명하는 놀음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20일 베네수엘라외무성은 미국대사관에 항의각서를 보내어 미국의 그와 같은 조치는

베네수엘라인민에 대한 침략적이며 간섭적인 저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 단호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예크 에베카트가 17일 한 외교적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결의를 규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회가 팔레스티나민족당의 인정을 거부할때 대한 결의를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팔레스티나령토로서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에

기초한 공교한 평화실현과 동부 구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에 새로운 장에로 진군하고있다.

그는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제법에도 결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평화과정은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식량안전과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

인디아수상 만모한 싱이 20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식량안전과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국제에서 기이행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국가적인 식량안정행동계획을

작성한데 대해 밝히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분배사업을 잘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앙 및 지방정권기관들이 초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열차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맹성원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민주여성련맹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해를 친해한 도발자들과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즉시 단호한 물리적대응타격을 가한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한 자위적조치로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전쟁수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제민주여성련맹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6. 15북남공동선언, 10. 4선언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한다.

서방의 대결 정책을 비난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가 18일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대결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정권들은 이란이 핵국가로 되는것을 막기 위해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서 필사적으로 책동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의지를 더 굳세게 해주었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핵국가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는 서방은 대결정책이 아니라 협조정책을 선택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군부사 측사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맹렬한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2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나토군부사 6명이 즉사하였다. 한편 17일 동부지역에서 나토군부사 2명이 즉사하였다. 이보다 앞서 15일에도 남부지역에서 나토군부사 1명이 황천객이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의 평화를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메드 알 바시르가 20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의 평화를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대륙에서 시급히 여러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안전 및 정보기관들은 아프리카평화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밑에 자체의 힘으로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피난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이 20일 팔레스티나피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귀환권리보장사항을 빼놓고 그 수순 평화정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난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합법적인 정지적요구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를 외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 당국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본사기자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3.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2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에 비해 3.3% 더 늘어났으며 1.61 미상수성이 이에 대해 뺏겼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8일 류혈적인 총기류범피사건이 일어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시의 한 간이시 당에서 무장범피자가 사람들에게 제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본의 도쿄 쇼요연주소는 8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11월에 전국적으로 1 061개의 기업체가 또 파산당하였다 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2 738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6일 일본경찰청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4 6만 5 223건의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채무위기가 격화되고있다. 17일 이 나라의 한 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들의 채무액이 6억 1 119만 8 000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해전에 비해 16. 26% 증대된것이다.

프랑스에서 10월에 공업생산량이 그 전달에 비해 0. 8% 줄어 들었다. 이 기간 특히 원유정제공업부문에서 생산이 56. 5% 감소되었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그리스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어 심

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원주에서 20일 마약밀수행위 가 드러나 206kg의 마약이 압수되고 3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같은 날 약사제이주에서 100kg, 디아브라크주에서 25kg의 마약이 몰수되고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오스트라리아에서 각종 범죄가 만연하여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6일 이 나라의 한 보건단체는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년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수가 10만 8 300여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10월에 공업생산량이 그 전달에 비해 0. 8% 줄어 들었다. 이 기간 특히 원유정제공업부문에서 생산이 56. 5% 감소되었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그리스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어 심

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11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7살미만의 청소년 45만명이 빈궁선 이하에서 살고있다고 한다.